

충청남도, 4개 의료원 '간호부 승격'

홍성·공주·서산·천안의료원 직제 개편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등 산하 4개 의료원의 간호과를 간호부로 승격하는 직제 개편을 지난 3월 15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홍성의료원은 최남일 간호부장을 3월 18일, 공주의료원은 이현복 간호부장을 3월 19일, 서산의료원은 윤정남 간호부장을 4월 1일 임명했다. 천안의료원은 임명예정이다. 간호부로의 직제 개편과 함께 간호부서장 직급도 상향 조정됐

다. 홍성의료원은 3급에서 2급으로, 공주·서산·천안의료원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다. 간호부장들은 "이번 직제 개편은 간호부서의 위상과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높아진 위상만큼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명된 충청남도간호사회장은 "4개 의료원의 간호부 승격은 충남 간호사들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간호부로 승격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양승



양승조 충남도지사

조 도지사님과 도청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예방하는 건강생활, 당신의 평생행복

보건 날 기념식 열려

보건복지부는 제47회 보건 날(4월 7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예방하는 건강생활, 당신의 평생행복' 슬로건으로 4월 5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축사(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독)를 통해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보건 날의 정체를 기존의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검진 확대, 주민건강센터 확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장,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건강-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 체계 전환에 대한 비전, 추진방향 및 분야별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창립기념일을 '세계보건 날'로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매년 4월 7일을 보건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진숙 기자** jslcc@

시간

- 간호사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
-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에세이 '간호이야기'



경주마비로 목 아랫부분의 감각이 없는 환자를 위해 두피마사지를 배운 간호사,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마지막일지 모를 환한 벚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숨이 차서 눕지 못하는 환자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포용... 서울아산병원 간호부(간호부위원장 김연희)는 간호사로서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에세이집 '간호이야기'를 펴냈다. 간호사 3500명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으고 추려 한권에 담았다. 책은 50편의 에세이가 수록됐으며 △1부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2부 '갑사가 주는 선물' △3부 '관심이 만드는 변화' △4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 등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간호하며 경험한 보람된 순간들, 애뜻한 기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엮었다. 병원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환자를 간호하며 찾은 간호의 의미, 환자와 보호자와의 교감의 순간, 간호사로서 성숙해가는 과정 등을 담담하게 나눈 글들을 읽다보면 코끝 찡한 감동이 밀려온다. 진심어린 간호가 환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간호사의 사랑으로 환자가 회복한다는 사실과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다. 자신이 펴보는 환자와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회복될 수 있길 바라는 간호사들의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김연희 간호부위원장은 서문을 통해 "우리는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환자와 가족을 위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간호를 실천하며, 간호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눈가를 촉촉이 젖게 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를 통해 경이로운 감동적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 간호사로서 행복한 순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간호 현장의 보배와 같은 간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2019년 면허신고 대상

-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2 ~ 2015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6년 면허 취득자
- ▶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신고기간

2019. 1. 1. ~ 2019. 12. 31.

면허신고 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며, 2018년까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면허신고센터 ☎1588-6282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비급여 항목 340개 진료비용 공개

국민 알권리 강화 위해 ... 매년 공개항목 확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전체 병원급 3825개 기관의 총 340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 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허가되거나 변동이 없는 항목비율은 88개였다. 특히 도수치료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여전히 가격 차이가 크고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최저 9

만2400원, 최고 25만원이었다.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배~2.5배 차이가 났으며, 중간금액은 17~18만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5만4300원, 최대 15만원이었다. 병원 종별 내 1.4~2.9배 차이가 났으며, 중간금액은 9~10만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최저 62만5000원, 최고 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병원 종별 내 4.1~4.3배의 가격차를 보였으며, 중간금액은 190~250만원이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최저 1000원, 최대 30만원이었다. 병원 종별의 중간금액은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최고액 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최저 2만원, 최대 15만원이었으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액이 4~7.5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중간금액은 3~4만원대로 병원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 2차 피해 경험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에 이어 전국 공공기관(400개) 및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성희롱 방지 정책 개선방안과 후속 연구추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지난 3년간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여성, 저연령층, 비정규직, 사회서비스업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7.8%였다. 2차 피해 경험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분노출, 불공정한 사건진행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 개선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예방 등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숙 기자** jslcc@

- 사하라 모래사막 마라톤 완주한 모험가
- '사막을 달리는 간호사' 김보준 저음



사하라의 뜨거운 모래사막 250km를 일주일간 달려 완주했던 극한의 모험가 김보준 간호사가 자신의 경험과 꿈을 담은 간호에세이 '사막을 달리는 간호사'를 펴냈다. 김보준 간호사는 2017년 세계 4대 사막마라톤 중 하나인 사하라사막마라톤에 도전해 완주에 성공했다. 50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 매일 정해진 거리만큼 완주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김보준 간호사는 마라톤 도전을 소아암 환우 돕기 프로젝트로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완주를 응원하며 김보준 간호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었다. 김보준 간호사는 호남대를 졸업했다. 그동안 무인도 생존, 고공점프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온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가이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을 완주했으며, 서울국제마라톤(동아마라톤)을 물통을 넣은 배낭을 메고 완주했다. 병원을 사직할 후 버킷리스트인 세계 여행의 꿈에 도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개국 183개 도시를 배낭여행했다. 책은 △1장 간호사가 될 거예요 △2장 삶과 죽음의 경계, 그 어딘가에서 △3장 사막으로 가는 길 △4장 사막을 달리며 △5장 끝나지 않은 도전 등으로 구성됐다. <포널스출판사/302쪽/14,000원> 김보준 간호사는 사하라사막마라톤 완주 후 간호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로 하나하나가 비명을 질러대는 것 같은 근육통, 일주일간 씻지 못한 불쾌감, 배고픔 같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는데 바로 포기라는 단어를 내뱉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에서 응원해준 많은 사람들과 소아암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다'를 외치며 태양이 작열하는 아슬한 사막을 달리고 또 달렸다"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cc@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2019년 면허신고 대상

-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2 ~ 2015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6년 면허 취득자
- ▶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신고기간

2019. 1. 1. ~ 2019. 12. 31.

면허신고 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며, 2018년까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

구분	해당사유	증빙서류	비고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신규 면허 취득자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 - 해당연도 출산자 * - 군복무자 *	성적증명서 임신확인서 병적증명서	* 해당연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는 2018.1.1.부터 면제자료 적용함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휴직자 - 퇴직 및 미취업자 - 교수 및 연구원 - 일반·행정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노조전임자 - 해외체류자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복무자 *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발령확인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 군복무자는 2017년까지 유예에 해당함

자세한 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면허신고센터
☎ 1588-6282

교원임용학원 강의만족도 부문 1위 해커스 임용

수석합격자 수, 합격자 수 1위!

2019년 수석,차석,~5등 이내 31명 합격!

최다합격지역! 경기,충청,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세종,충남,충북,경북,충동,전남,전북,제주도

김기영 전공보건

- 100여명 합격사례, 합격수기가 입증한 강의!
- 2020학년도 암기노트 상(上) 4월 말, 하(下) 7월 말 출간 예정
- 2019년 1-4월 기준 직·인강생 인원 수 최다 보유

임용 상담 20년 노하우 전문가!
1:1 학습컨설팅
맞춤 전화 상담 서비스

HACKERS 임용

teacher.HACKERS.com
02 566 6860